

끝이지않는 산업재해...재앙이 된 코리안드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 18명이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의 배터리 제조업체(아리셀 공장) 화재로 희생됐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숨진 참사로 기록됐다. 고령화가 심화하고 인구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는 광주·전남에서는 이미 외국인노동자의 노동력은 필수가 된 지 오래다.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하는 광주·전남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긴급 점검

광주·전남 외국인노동자 안전한다

<상> 위험한 현장에 내몰린다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의 12.1%가 외국인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에 등록된 외국인노동자는 6만 명을 넘어섰고,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광주·전남의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총 1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가족들을 잘 부양하기 위해 고국을 떠나거나 광주·전남의 산업현장의 일꾼이 됐던 외국인노동자가 차가운 시신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비례)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광주·전남지역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년)새 광주·전남의 산업현장에서 숨진 외국인노동자는 총 29명(광주 5명, 전남 24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9년 10명, 2020년 9명이 숨졌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하지 못한 시기인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3명과 2명으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고 지난 3월까지 전남에서 1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숨졌다.

지난해 광주·전남 산업재해 사망자 41명 중 5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의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다친 외국인 노동자는 241명(2019년)→258명(2020년)→259명(2021년)→256명(2022년)

외국인 산재 사망 5년새 29명 부상자도 연 평균 300여명 달해 제조·건설분야에서 사고 많아 절단·고공작업 외국인에 전담 “언제 다칠지 몰라” 불안 속 노동

→289명(2023년)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3월까지 97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안전사고로 다쳤다.

노동계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한국노동자보다 더 높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면서 이들의 안전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외국인노동자들은 “힘들고 위험한 일들은 다 우리만 시킨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절단작업이나 화학약품 처리, 고공작업 등 한국 노동자들이 맡지 않는 위험한 작업은 외국인노동자 전담이라는 것이다.

6년 전부터 광주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출신 A씨는 “건설현장에서 한국노동자보다 우리(외국인노동자)들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킨다”면서 “특히 위험한 작업은 다 우리(외국인노동자) 몫이고 말로 표현하기도 벅하고 따질 수도 없는 입장이라 ‘올머 겨자떡기’로 하고있다”고 호소했다.

1년 전 한국제조공장에서 조립작업을 하고 있는 B씨도 “언제 다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씨는 “한국어가 미숙해 잘 알아들을 수 없는데 위험한 기계 사용법을 한국어로만 설명해줘 익히지 못한 상태로 일하고 있다”면서 “기계를 사용할 때 마다 혹시 신체 일부가 빨려 들어갈지 모른다는



지난 30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두려움이 있지만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고 하소연했다.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 분야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 고용허가제 없이는 일할 수 없지만 여전히 주조, 금형, 용접 등 어려운 제조업 분야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의존도가 높다.

이를 증명하듯 전남지역 외국인 노동자 ‘제조업’ 분야 사고 사망자는 5년간 10명, 부상자는 259명에 달했다. 위험도가 높은 건설업 분야도 사망자가 11명, 부상자가 216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제조업도 같은기간 사망자는 2명에 그쳤지만 부상자는 303명에 달했고 건설업도 사망자 3명, 부상자 244명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전체 취업자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5% 미만이지만 산재사망자의 10%를 외국인노동자가 차지하는 것은 한국 노동자보다 사망 사고가 2~3배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의 산업현장에 죽으러 온게 아니다”면서 “필수인력인 외국인노동자도 우리의 이웃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성매매 알선 수역 쟁권 보도방 업주 구속

광주광산경찰, 유흥업소 업주 26명 등 28명 입건 수사

성매매를 알선해 수역을 쟁권 40대 보도방 업주가 구속됐다.

광주광산경찰은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A(45)씨를 성매매처벌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 이외에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26

명과 모텔 업주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다.

A씨는 등록하지 않고 유흥 접객원을 알선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여성접객원 40여명을 유흥주점에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유흥업

소 업주들과 함께 이들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알선비 명목으로 총 7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보도방 업주와 유흥주점 간 이권 다툼에서 보도방 업주끼리 흥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보도방과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수사하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첨단지구 인근에서 운영해와 현재 이 일대 최대 규모의 보도방 업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발부받았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희비 엇갈린 무등산 원효사지구 이전 소송

건물주들 손실보상금 일부 승소...임차인들 생활대책 대상자 패소

무등산국립공원 내 원효사 집단시설지구(무등산장 일대) 이전 사업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건물주들은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지만, 임차인들은 생활대책 대상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2-3부(부장판사 이민수)는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 지구 내 건축물 및 수목 공동소유주 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께 부동산의 수용이 개시돼 감정가에 따라 843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분에 따라 나눠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수용결정 당시 법원 감정 결과(8770여만원)에 미달한 부당한 감정평가라며 지연손해금과 주거이전비(970여만원), 이사비(180여만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감정은 모두 적법하지만 법원감정 결과가 재판요인을 더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손실보상금 차액(340여만원)만 지분에 따라 지급하고 지연손해금과 이전비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무등산 원효공원마을지구 내 상

가 임차인 A·B씨가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생활대책대상자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원효사지구 내 건물을 임차해 식당영업을 해왔고, B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건물을 임차해 식당영업을 해왔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이전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2020년 5월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 확정을 위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라고 공고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임차영업권자도 생활대책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했으나 공단측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물주들은 혜택을 받게해주는 반면, 수십년 동안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영업권자들이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지원하는 생활대책은 법적 근거 없이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으로 마련한 시제조치에 해당한다”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시행여부, 대상 선정 등 광범위한 재량이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별 통보에 화 난 여성, 전 남자친구 집 불 질러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전 남자친구 집 때문에 불을 지른 A(여·30)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한 빌라에서 대문도 여력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집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4분 만에 꺼졌지만 도어락 일부가 불타면서 22만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남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데 대해 화가 나 술에 취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감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감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감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감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